로컬플러스

김동수 군산도시가스 회장 전북애향 기업특별대상 수상

김동수(사진) 군산도시가스(주) 회장이 전북애향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제39회 전북애향대상 기업특별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으로 활동 중인 김동수 회장은 1990년 군산도시가스를 설립해 완벽한 안전관리, 회사와 지역사회발전, 인적자원의 전문화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향토기업으로 성장시킨 전문 경영인이다.

지역 향토기업으로 2015년 기준 각 계열사의 고용인원 2213명(연 매출실적 8646억원)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체계적인 근로자 복지증진에 앞장서 온 공로도 높이 평가됐다.

애향대상 증정식은 오는 13일 오후 5시 전주 호텔르윈에서 열린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대 박경원 · 이호 교수 경영교육학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군산대학교 회계학과 박경원 교수(46)와 경영학부 이호 교수(43)가 지난달 숭실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경영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2016년도 한국경영교육학회 최우수논문상'을 공동 수상했다.

한국경영교육학회는 학교 및 사회경영교육에 관련된 이론과 실무의 연구 및 발표로 한국 경영교육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6년 설립됐다. 현재 약 2000명의 전국 교수들로 등록된, 경영교육 분야에서 국내 최대학회이다.

한국경영교육학회 논문상은 지난 한 해 동안 학회에서 발행한 논문 중 최우수논문 1편 우수논문 2편을 각각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박경원 교수와 이호 교수의 논문은 경영교육연구 제30권 제6호(2015년 12월호)에 발표된 바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암관리 · 건강검진사업 평가대회 군산시 보건소 최우수기관 선정

군산시가 전라북도와 전북지역암센터가 주최·주관한 '2016 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평가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암관리·건강검진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 내용과 방향을 공유해 우수사례 전파, 정보교환 등 소통의 시간을 통해 국가 암관리 및 검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평가 방식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암검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수검률, 암 예방교육·캠페인 활동, 우수사례 발굴 등 3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군산시가 올 한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건강검진 독려 및 언론매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의회 강경숙 의원 교통안전대상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1일 국회 교통안전포럼에서 주최하는 '2016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에서 익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인 강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장관상에 선정되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선진교통안전대상은 교통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각 분야의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각계 교통안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선발하여 수여한다.

강경숙 위원장은 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부터 자원봉사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익산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를 구성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초대 회장 및 고문으로 지난 12년간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있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익산=장양원기자

원광대 마한 백제문화연구소

익산 성곽 학술조사 보고서 발간

시도문화재 지정되지 않은 선인봉 등 이번 조사 통해 위치 · 현황 확인

익산시와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소장 최완규)가 익산지역 성곽 12개소에 대한 측량 및 정밀 지표조사 성격의 학술조사를 완료하고 〈익산의 성곽〉을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익산에는 백제시대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12개의 성곽이 분포해 있는데 이중 10개가 마한 백제 고도인 금마 왕궁 주변에 밀집되어 있다.

발굴조사가 일부 진행된 익산토성, 미륵산성, 금마 도토성, 낭산산성을 제외하고는 국가 및 시도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선인봉 당치 함라 용화 학현산성의 경우 관련 자료가 전무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학술 조사를 통해 각 성곽의 위치와 현황이 확인되었다.

역사적으로 산성은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요새 뿐 아니라 지방행정 통치의 중심지로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산성의 중요성은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조선까지 계속되었고, 익산의 성곽에서도 그 면모를 살펴 볼 수 있다. 익산지역 산성은 둘레 700m 이하의 소형 산성이 대부분으로, 금강 연안의 함라산 일대와 미륵산의 금마면 일대 산맥을 따라 선상으로 배치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백제 산성의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익산의 성곽은 시계가 양호한 곳에 축조되었는데 해발 125m인 오금산 정상부에 축성된 익산토성의 경우 동쪽으로는 함라, 남쪽으로는 전주 모악산, 동쪽으로는 천호산까지 관망되며, 북으로는 미륵산(미륵사지와 미륵산성)이 한 눈에 조망된다.

고대도성의 요건(궁성, 국가시찰, 왕릉, 관방유적)을 잘 갖추고 있는 익산은 1980년대부터 미륵사지나, 왕궁리유적, 제석사지 등에 대한 학술 발굴조사를 통해 그 면모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그 결과 2004년 대한민국 고도 경주 공주 부여에 이어 대한민국 고도로 지정되었고 2015년에는 백제왕도로서 진정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성곽, 방어시설 등 관방유적에 대한 조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익산성곽 학술조사가 정체되어 있던 익산지역 관방(성곽)유적에 대한 관심을 다시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향후 익산 성곽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세계유산 도시, 백제왕도 익산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이번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학술조사 연구와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고군산군도 운항 신규 여객선 취항 예정

내년 말부터 206톤 차도선으로 승객 120명 · 중형차 1대 운송가능

내년 말부터 고군산군도를 운항하는 신규 여객선이 취항될 예정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상표)은 "군산~말도 항로 운항선박인 장자훼리호를 대체하는 국고 여객선(차도선)의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목포 소재 고려조선(주)과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총 27억원(국비)이 투입되는 신조 여객선은 총톤수 206톤, 길이 49m, 폭 9m, 깊이 2.5m의 차도선으로 승객 120명, 중형차 1대를 운송할 수 있으며 완공날짜는 2017년 말이다.

이 배의 특징은 여객실 현측을 창호로 배치해 객실 내에서 360도 관람이 가능하도록 했고, 교통약자를 배려해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외해의 너울성 파도 등 거친 해상환경에 대비해 1000마력 주기관 2대를 설치해 선박의 안전성을 도모했다.

신조 여객선은 고군산군도 연륙교 개통으로 여객선 운항 중단이 예상되는 2018년 초부터 선유도를 정박지로 장자도~관리도~방축도~명도~말도를 운항할 계획이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안전한 선박 건조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서민의 육지 나들이가 하루에 가능할 수 있도록 '1일 생활권' 항로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이달의 독립운동가

최수봉 선생 · 제임스 R. 스톤 중령 선정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우실)은 국가보훈처에서 12월의 독립운동가에 최수봉 선생과 6.25 전쟁 호국영웅에 제임스 R. 스톤 중령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수봉 선생

J. R. 중령

최수봉 선생은 1894년 경남 밀양의 빈한한 농가에서 태어나 개량서당을 다니면서 한문과 유교적 가르침을 익히고 신지식도 섭렵하였다.

약산 김원봉 선생과 함께 밀양공보를 다니던 중 단군이 일본 대화족(大和族) 시조의 아우라고 주장한 일본인 교사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하였다.

1910년 동화(同和)학교에 편입하여 김대지 등 독립운동가의 가르침을 받으며 조국애와 항일의식을 키워왔다.

1916년 평안도에서 광부와 우편배달부 생활을 한 후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인 봉천(오늘날 선양)과 안동(오늘날 단둥)을 왕래하며 동지를 규합했다.

1920년 의열단이 국내 일제기관 총공격거사 계획을 세우고 폭탄을 밀반입하려다 일제 경찰에 적발되어 여러 단원들이 체포되자 선생은 이종암 등과 식민통치의 폭압기관에 폭탄을 투척하기로 하였다.

1920년 12월 27일 월요일 아침 경찰서장이 연말연시 특별경계를 당부하는 훈시를 하던 틈을 타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던져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선생에 대한 재판은 상고심까지 진행되었으나 일제는 의거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하였고, 확정판결 한 달 보름 만에 대구감옥에서 사형을 집행하였다.

선생의 의거는 항일 민심과 독립운동 진영을 고무시켜 이후 김익상의 조선총독부 투탄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선생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어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스톤(J. R. Stone)중령은 1950년 12월 18일 캐나다군 최초로 장교 44명, 사병 873명으로 편성된 경보병연대 제2대대를 이끌고 부산항에 도착했다.

선발대로 참전한 경보병연대 제2대대는 대대장 스톤중령의 지휘아래 곧바로 경남 밀양천 둔치에 캠프를 설치, 현지 적응훈련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였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바 있었던 스톤은 6.25전쟁이 터지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했던 평소의 신념대로 한국에 자원하게 된다.

이러한 그의 신념은 그의 부대에도 그대로 전파되어 당시 한국전에 참전한 영연방 군대 내에서 최고의 용맹성을 갖춘 부대로 재탄생하게 된다.

특히, 1951년 4월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맞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투를 벌여 대승을 이뤄낸 가평전투는 한국전에서 가장 빛나는 전공 중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백병전까지 치러가며 중공군을 몰아냈던 스톤 중령과 그의 경보병연대 제2대대는 오늘날 가평의 전설로 불리며 기억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설해대책 준비 점검

정헌율 익산시장은 1일 도로관리 상황실을 방문해 겨울철 설해대책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정헌율 시장은 이날 겨울철 강설로 인한 교통 불편 해소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장비와 시설을 점검했다.

시는 지역 내 주요도로 106개 노선 406km에 대한 동절기 설해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11월까지 설해자재 준비와 제설장비에 대한 점검과 시운전을 마치고 관내 주요지점 및 교량 등 위험도로에 모래와 적사함을 배치했다.

정헌율 시장은 "관계자와 현장 근무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제설 종합대책 재점검과 비상준비체계 구축, 24시간 상황실 운영에 힘써 안전하고 쾌적한 겨울철 설해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골목길 제설작업까지는 한계가 있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 집 앞 눈치우기와 주요 간선도로 불법주정차 금지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영광여고, 사랑나눔 봉사 활동 전개

생필품 · 과일 사랑의집 등 7개 기관 직접 전달

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교장 이현철) 교직원과 학생들이 약 100여 박스의 생필품과 과일을 모아 사랑의집을 비롯한 7개 기관에 직접 전달하는 등 사랑나눔을 실천해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다.

추수 감사 주일(11월 넷째 주)을 맞아 교직원과 학생들은 이지역의 유일한 기독교 사학으로 건학이념에 기초한 사랑 나눔 정신과 감사의 마음을 몸소 실천하고자 나눔 활동을 위한 생필품 모으기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달 29일과 30일에는 나운동 새길노인복지센터와 협력해 홀몸 어르신 70여 분에게 직접 만든 생필품 가방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교목실의 최영수 교목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사랑나눔 정신과 배려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성공 추진

군산시 사회복지공무원 워크숍 개최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서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사업인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군산시 사회복지공무원 워크숍이 1일 개최됐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은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여 복지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상담하고 다양한 민간기관과 협업하여 주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자 마련한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사업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양원 부시장과 박정희 시의회의장, 김상윤 노조위원장이 워크숍에 참석해 사회복지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인 수송동과 나운2동 맞춤형복지팀의 그간의 성과 및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2017년 사업 추진 지역의 사전준비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자원발굴 및 민관협력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양원 부시장은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시민의 복지만족도와 직결되는 만큼 찾아가는 상담과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4월 수송동과 나운2동이 복지허브화사업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공노하우 확산을 위해 취약계층 일제조사 및 민관협력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벤치마킹하고자 전국 지자체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행자부 자전거 우수시책 공모

'자전거도로 안전, 자활사업 협약' 국무총리 표창

군산시가 행자부 주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자전거 우수시책 공모전 안전사고 예방분야에서 '자전거도로 안전, 자활사업 협약시책'으로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전은 자전거 보유대수 1000만 시대를 맞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약 1개월의 공모기간을 거쳐 서류 및 발표심사 등 2단계의 전문가 평가와 일반국민이 참여한 인터넷 투표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시책이 선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군산시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군산지역자활센터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자전거도로 제초작업·청소를 신속히 처리하여 예산절감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군산시는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선정된 금강자전거길, 옥구저수지, 시내 자전거도로, 군산~서천 자전거 대행진 행사 구간 등 70km 구간의 제초작업과 청소를 실시해 자전거도로 이용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자전거도로를 정비해 왔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협약시책을 지속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자전거와 도로 유지관리 등 자활사업 협약분야를 확대해 유지관리 예산 절감 및 신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삼양식품 공장 방문

정헌율 익산시장은 1일 향토기업인 삼양식품(주) 익산공장(공장장 오영탁)을 찾아 현장행정을 펼쳤다.

정헌율 시장은 공장을 둘러보며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동남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으로 유명한 불닭 볶음면을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시장은 "향토기업인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기업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양식품의 주력 생산품인 불닭볶음면은 국내는 물론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전년대비 300% 매출을 급성장시켜 익산공장에서만 1,000억원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 7월에는 35명의 직원을 추가 채용해 현재는 185명이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삼양식품 익산공장은 1971년 2월19일 설립된 후 11,000㎡의 공장부지에 삼양라면 등 11개 품목을 생산하는 4호기의 자동화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